

문화 다양성 협약과 문화유산

박희수(수원지부), 신진아(수원지부)

2001년 11월 2일 유네스코 총회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 다양성 협약)'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에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되었다. 이 협약은 국내에서 2010년 7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문화 다양성 협약은 각국의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공존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문화교류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문화상품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하고, 각국이 문화정책을 수립할 자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문화교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문화 약소국에 대한 지원도 명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 문화산업의 강화, 개도국 예술가와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 대우, 문화다양성 국제기금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회원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은 편이다. 국가부담금이나 비공식 지원금 규모도 높은 편이며, 본부의 의제들을 국가별로 이행하는 데 있어 솔선수범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간 국,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적용과 이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와 협의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에서 문화적 통합은 개발도상국에서 역동적인 창조적 부문의 출현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역 및 국제개발 지원체계, 정책 및 프로그램에 문화를 통합을 말한다. 문화 다양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7년부터 5년 동안 '아태지역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을 보존 및 복원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자립성을 높여주고, 개발도상국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세계적 가치를 지닌 중요 문화유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뒷순위로 밀린 문화유산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국가 국민이 자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인류 공동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현재, 라오스 세계유산 흥남시다 사원 보

존·복원 사업, 미얀마 바간 유적 벽화 보존처리 사업,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 유적보존 신규 사업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협력국 무형유산 및 기록유산 등재, 보존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2017년 12월 라오스 전통악기 ‘켄’이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 사회의 정체성,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즉,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